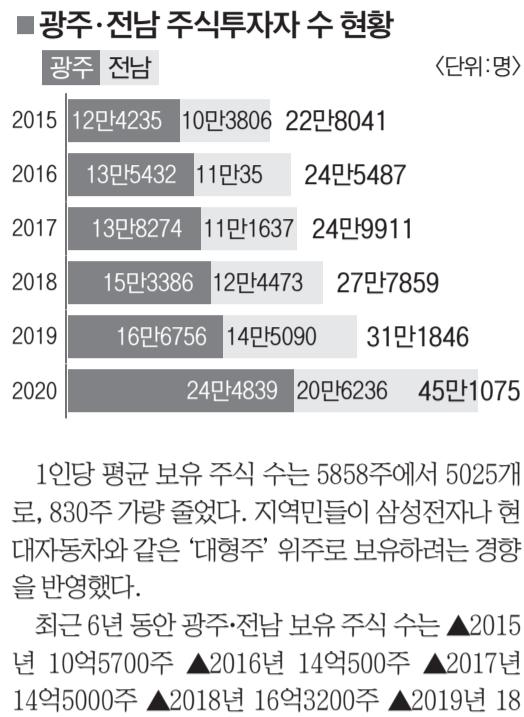


꺼지지 않는 주식 열풍...광주·전남 주식투자자 45만명

예탁결제원 '법인 소유자 현황' ... 지난해 말 광주 24만·전남 21만명
광주 지난해보다 7만8083명 46.8%·전남 6만1146명 42.1% 급증
지역 투자자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형주' 위주 투자 몰려

지난해 광주·전남 주식 보유자가 45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1년 새 주식 투자자가 14만명이나 늘어나며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뜨거웠던 주식 투자 열기를 반영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 주식 소유자(중복소유자 제외)는 광주 24만4839명·전남 20만6236명 등 45만1075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9229명(44.6%) 급증했다.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주식 소유자 증가율은 40%대를 기록하며 주식 투자 인기를 실감케했다. 광주 주식 투자자는 1년 새 46.8%(7만8083명) 증가했고, 전남은 42.1%(6만1146명) 늘었다.

지역 주식 투자자는 ▲2015년 22만8041명(광주 12만4235명·전남 10만3806명) ▲2016년 24만5487명(광주 13만5432명·전남 11만135명) ▲2017년 24만9911명(광주 13만8274명·전남 11만1637명) ▲2018년 27만7859명(광주 15만3386명·전남 12만4473명) ▲2019년 31만1846명(광주 16만6756명·전남 14만5090명) 등 매년 늘고 있다. 5년 전인 2015년(22만8041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97.8%) 늘어났다. 지역민들의 보유 주식 수는 지난해 22억6600주로, 전년(18억주)보다 24.1%(4400만주) 증가했다.



억2700주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전국 기준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352개에 대한 주식 소유자는 약 919만명으로, 전년보다 300만3055명(48.5%) 증가했다.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총 주식 수는 약 991억주로, 1인당 평균 약 1만779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 소유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244만명(26.5%)으로 가장 많고 경기 232만명(25.2%), 부산 57만명(6.2%)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수 대비 보유주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25.2%), 울산(22.6%), 대전(18.1%), 경기대구(17.3%)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주식 소유자 수가 인구 145만명 대비 16.9%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전남은 인구 185만명 가운데 주식 소유자 비중이 1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는 6명 중 1명 꼴로 주식 투자를 하는 반면, 전남은 10명 중 1명 정도만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한편 전국 기준 1인당 평균 보유 종목은 5.24종목으로 전년보다 1.01종목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유 주식 수는 전년 대비 29.3% 줄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은 295만8682명으로 소유자가 가장 많았다. 소유자 수 2위인 현대자동차(69만2374명)보다 4배나 많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소유자 수가 29만36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게임즈(27만4806명), 신라젠(16만5672명) 순이었다. 개인 소유자의 연령·성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221만명(24.3%)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 주식 수는 50대가 164억주(33.1%)로 제일 많았다. 주주 성별은 남성이 522만명(57.3%), 여성이 389만명(42.7%)으로 14.7%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들이 가진 주식 수를 비교하면 남성 364억주(73.3%), 여성 133억주(26.7%)로 격차가 벌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스타기업' 29일까지 모집

매출 31%·수출 22.7% 증가 효과
2022년까지 75개사 선정 계획
전남도가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발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1년 지역스타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46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 평균 31%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까지 75개사를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첫 해에 전담PM(Project Manager) 컨설팅, R&D과제 기획, 맞춤형 기업지원 등 최대 4천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음 연도부터는 성과에 따라 기업당 2억 원

이내의 R&D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본사가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5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전남 주력산업인 그린에너지산업,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산업, 첨단운송기기부품산업의 전·후방 연관 업종이어야 한다. 2019년 전남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주)조은테크는 담양에 위치한 건축 내·외장재 전문 생산업체로, 에너지 절감형 모듈러 주택제작 기술, BIM 설계 솔루션 개발 등 R&D 지원을 받아 특허 2건을 출원했다. 지난해 말 지원 전보다 두 배 가까운 1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정규직 6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새 일지리를 늘리고 있다. 2020년 선정된 (주)스위코진광은 나주에 위치한 전력 개폐기, 차단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

로, 지난해 신축공장 설립과 함께 핵심부품 자체 제작 기술과 해외영업권을 확보했다. 전체 매출액 124억 원 가운데 수출이 62억 원을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46개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31%가 늘고, 수출은 22.7%, 고용은 7%가 각각 늘어나는 등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 스타기업이 기대 이상의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도 스타기업이 전남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남 TP와 협력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로 잡아요" 봄철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광주신세계 8층 '발뮤다' 매장은 새로 출시한 공기청정기를 이달 말까지 20만원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23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공기청정기 매출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밤에는 무인...광주전남증기청,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 모집

'비대면' 소비트렌드 대응
4월 16일까지 신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동네슈퍼의 비대면·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점포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지난 10일 전국 총 53개의 지자체 중 광주·전남은 여수시·보성군·장흥군 등 전남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고, 심야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부합하고, 공공연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미만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증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 및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오는 4월16일까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지역 외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는 4월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신청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